사찰에서 평생의 인연 만나요

日혼간지, 결혼중개서비스 제공 '화제'

사찰 매개 결혼 '테라콘'
"신도 위한 역할 수행"
대중 친밀감 확대 도움

김민재 객원기자

일본 도쿄의 중심에 있는 고찰 츠키지 혼간지(築地本願寺). 일본 최대의 종파인 정토진종의 도쿄분원으로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이다. 또 근대에 아잔타-엘로라 석굴을 모방한 중창불사로 이루어진 독특한 외관 덕에 관광지로도 이름이 높다.

오랜 역사와 함께 도쿄의 관혼상제를 맡아온 이 사찰이 최근 결혼중개서비스를 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은 츠키지 혼간지의 결혼중개서비스 '츠키지의 테라콘' 을 특별 보도했다.

'테라콘' 이란 사찰을 뜻하는 일본어 단어 '테라(寺)' 와 혼인의 '콘(婚)' 을 합친 신조어로, 사찰을 매개체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정식 결혼중개업체로 출범한 '츠키지의 테라콘' 은 현재 성혼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지만,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테라콘을 이끌고 있는 도쿄 야스코 스님은 "중세시대엔 동네 사찰이 미혼자를 위한 중매쟁이의 역할을 했다는 기록과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하고 있다"며 "츠키지 혼간지는 잊혀졌던 그 역할을 되살려 오늘날 젊은이들과 다양한 연령,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사찰에 대한 친밀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츠키지 혼간지 측도 "그동안 혼간지를 통해 성혼이 이루어진 불자 부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통 사찰 신도의 개인적인 요청을 받으면 역시 신도 중에서 다른 중개업체의 회원을 이어주는 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사찰 측에서 직접적으로 나섬으로써 행복한 결혼과 불자 부부 모임으로 이어기질 바라면서 정식으로 중개서비스를 출범했다"고 전했다. 또한 혼간지 측은 "이를 선례로 삼아 다른 사찰이나 종단들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테라콘의 실무를 맡고 있는 결혼 상담가 와타노부 레이코는 "혼간지에서 테라콘을 시작했을 때 기대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다. 아마도 사람들은 사원에서 직접 중매를 나섰기 때문에 편히 마음을 여는 것 같다. 주말에도 회원 인터뷰와 부부 회담을 위한 예약으로 바쁘다"고 말했다. 현재 테라콘 가입희망자들은 혼간지에서 스님이나 결혼상담가와 면접을 보고, 결혼중개대행 네트워크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사찰의 직원들은 회원들의 프로필을 만들고 요구사항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결혼을 돕고 있다.



츠키지테라콘 중매서비스 광고. 사진출처=츠키지혼간지 홈페이지

지난 9월 테라콘에 가입한 40대의 남성은 "기존 중개업체에 등록하기엔 너무 부끄러웠고 현재 수요가 많은 중개앱의 기계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기는 꺼려졌었다. 그러나 모두에게 알려진 유명 사찰에서 중개 서비스를 시작해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현재 츠키지 혼간지는 모든 연령대의 가족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열린 사찰' 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리비가 없는 묘지, 경찰서 내에 카페와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도 유치해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환경 · 생명 위해 동물 착취 멈춰야"

달라이라마, 채식식단 권장
세계 동물의 날 메시지서


세계 동물의 날 기념 연설 중인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닷컴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채식식단을 권장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10월 7일 국제불교 전문매체인 '글로벌 부디스트도어' 와 '더 비트' '파율' 등 외신들은 달라이 라마의 세계 동물의 날 메시지를 보도했다.

달라이 라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의 관저에서 비대면 생중계로 발표된 메시지에서 "여러 선진 국가에서 단지 고기를 소비하기 위한 대형 축산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 매우 유해하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채식식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스포츠, 유희, 도전과 같은 목적을 내걸거나 가죽과 모피를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역겹고 고통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잔혹행위를 탐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불살생의 기조를 전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동물 착취를 지양하며 동물에게 보다 덜 의존하는 온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촉구했다.

달라이 라마는 인도처럼 채식문화가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과 문화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비실용적"이라고 지적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와 몽골 일부 지역과 추운 기후 지역에서는 수세기 동안 동물에 의존해 생계를 꾸렸기에 하루아침에 채식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운동에 동참하는 작은 노력의 일환으로, 티베트 불교의 사찰과 티베트인 학교의 식단에서 육류소비를 줄이고 채식 식단을 늘릴 것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 육류보다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재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는 오래전부터 채식을 권장해 왔으며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의 육류소비를 제안해 왔다. 달라이 라마 스스로도 인도망명 직후 채식을 시도했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 최소한의 육식 식단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티베트인들 역시 그 뜻에 동참하여 채식주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달라이 라마가 태어난 수요일에 맞춰 매주 수요일엔 육식과 동물성 제품의 사용을 피하는 풍습이 생기고 있다.

한편 세계 동물의 날은 1925년 독일작가 하인리히 짐머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베를린에서 제1회 세계 동물의 날을 시작으로 매년 10월 4일마다 열리며 전 세계 동물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영국에 본부를 둔 동물복지 단체인 네이처워치 재단이 주도하고 후원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세계적 스승 틱낫한, 94번째 생일 맞아

플럼빌리지, 메시지 발표
건강 우려에 "건강하다"


틱낫한 스님의 94세 생일을 맞아 플럼빌리지가 공개한 사진.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세계적 명상 스승이자 평화 운동가인 틱낫한(Thich Nhat Hanh) 스님이 10월 11일 94번째 생일을 맞았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의 10월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틱낫한 스님이 만든 수행 공동체인 플럼빌리지(Plum Village)는 이날 전 세계 신도들에게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다.

플럼빌리지는 "작년 이맘때 틱낫한 스님의 수도승 제자들로서 우리는 그에게 생일을 기념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평생을 수행하며 살아온 스님은 '너희가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물질적인 게 아니다' 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플럼빌리지는 "스님은 우리에게서 달마를 실천함으로써 어떻게 고통을 평화와 즐거움, 행복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듣는 게 선물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연민과 관용을 가질 것을 장려한다"며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승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틱낫한 스님은 2014년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으나 집중 치료를 받은 후 2016년 12월 말께부터 호전됐다. 2018년부터는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 뚜 히에우(Tu Hieu) 사찰에서 주석 중이다.

최근 틱낫한 스님의 건강 상태가 다시 악화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플럼빌리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틱낫한 스님은 건강하다"고 발표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순례단 태운 버스, 열차사고 참사

20명 사망 · 45명 부상

태국에서 불교 순례자들이 탑승한 버스가 화물 열차와 충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다만 해당 버스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게 주된 사고 원인으로 밝혀져 비판의 시각도 있다.

10월 13일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중부 차청사오주(州)에서 관광 버스가 화물 열차와 충돌해 버스 탑승객 중 20명이 사망하고 45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버스에는 사뭇쁘라깐주(州)에 위치한 한 공장의 근로자 64명이 탔으며, 이들은 차청사오주의 한 사찰에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사고는 버스가 열차 선로를 건너려고 시도하던 중 발생했다. 건널목에는 경고등과 신호등은 있었지만 차량 차단기는 없었다는 후문이다.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은 태국국영철도(SRT) 측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차청사오 주지사는 "과속방지턱과 장벽을 설치하고, 가시성 향상을 위해 교차로 근처에 나무를 베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쁘라윳 짠 오차 태국 총리도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총리 측은 "사망자와 유가족, 부상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 정부에 명했다"며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전담 조사반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버스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당시 기관사가 사고 지점 약 300m 전부터 경적을 울리고 경고등도 작동시켰으나, 버스 기사가 음악을 크게 틀고 승객들은 춤을 추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버스의 최대 탑승 인원은 42명이었는데 실제로 65명이 탑승, 적정 중량 초과로 버스가 건널목을 제때 건너지 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당국은 열차 기관사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현재 태국 내 설치된 철도 건널목 2657개 중 676곳은 불법이라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지역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 안전 장치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2014~2019년 간 태국에서 발생한 철도 건널목 관련 사고는 486건으로, 이중 143건은 불법 건널목에서 발생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